

티마독서

불교 입문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믿기만 하고 논리적 이해를 배제하면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교의 궁극적 경지에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불교교양대학들이 개강하는 3월, 해마다 이맘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불자들의 열기 또한 뜨겁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불교의 숲으로 가 보고 싶으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고 토로한다.

어떤 분야를 배우려면 그 분야의 텍스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불교의 경우 텍스트는 불경이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바르게 길을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심자의 경우 불경 공부로 바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불경 공부에 앞서 길라잡이로 삼을 만한 입문서들을 소개한다.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각 사찰에서 초심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입문서로는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불교길라잡이> (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불교입문>은 불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교리를



불교 길라잡이 등 입문서 다수

기초교리·예절·수행법 등 서술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종교관, 불교의식과 문화, 상식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사찰에서의 불자의 예절, 수행, 기도하는 법 등 구체적인 수행 실천 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불교입문>이 교양대학 교재에 가까운 반면 <불교길라잡이>는 일반인들이 늘 곁에 두고 지침서로 활용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시작으로 초기 교단과 선(禪)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 간추린 한국불교사, 불교의식, 사찰, 불전 다이제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종합불교입문서다. 또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불교에 대한 99가지 질문 선정, 문답으로 자상하게 일러준다.

많은 입문서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불자들의 눈길을 잡아채는 것은 문답형식의 책들이다. 불교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제 또는 확실히 이해할 수 없어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대원정사의 '100문 100답'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불교입문편'과 '불교강좌편', 선의 기원과 역사 등 선의 기초적인 부분은 정리한 '선불교강좌편', 불보살과 신중의 모든 것을 소개한 '불보살 신중편'이 있다. 경전, 교리, 수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를 간추린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민족사도)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또한 일본 고마자와대학 교과서로 편찬된 <불교입문>을 비롯해 강건기 교수의 <불교와의 만남> (불지사), 장희욱 교수의 <불교학 개론 1·2> (웅진),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역시아만), <절에서 배우는 불교> (우리) 등도 입문서로 권장한다.

'禪스승의 편지'

원순 스님 옮김

선공부의 길 상세히 제시



대해 종교(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체를 설명한 편지를 모음집이 바로 <서장(書狀)>이다. <대해서>, <대해서문>, <대해보각선사서> 등으로도 불리는 <서장>은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어 선 공부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대해 스님은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는 목조선을 배격하고, 공안을 침구해 깨달음에 들어가서 간화선을 정착시킨 중국 송대 선불교의 중흥조다. <서장>은 대해 스님이 주로 사대부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 준 편지글로, 그의 제자 해연과 황문평이 중편했다.

참선 지도서이자 선문의 요지를 철저히 설명해 놓아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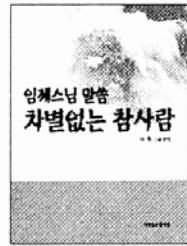
님들 사이에서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왔을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선방 수좌들 간에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은 짊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장>은 조사 스님들의 어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수과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간 <선(禪) 스승의 편지> (법공양)는 대해 스님의 <서장>을 송광사 인월암에서 정진하고 있는 원순 스님이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학인 스님을 위한 별도 교재도 같은 제목으로 출간했다. 값 1만원.

출판 담당=김중근 기자 garna@buddha pia.com

'차별없는 참사람' 서용 스님 연의



임제 의현(?~867) 스님은 법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설했다.

"여기 빨간 꽃 덩어리 안에 한 차별없는 참사람이 있어 항상 여러분의 눈 귀 코 입 등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그 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차별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 스님이 선상에서 내려와 그 스님의 목살을 잡고 말했다. "이르라, 이르라."

참사랑 실천승동의 교과서

그 스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려 하자, 임제 스님은 밀쳐 버리고 "차별없는 참사람은 이 무슨 통대대기인가"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갔다.

임제 스님은 인간의 근원적 주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우리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구족성, 광등성, 자유성, 본래성을 갖춘 차별없는 참사람이라는 법문을 하셨다.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용(보통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이 연의(衍義)한 <차별없는 참사람>은 임제 스님의 상당, 시중 법어와 선사들과 나는 선문답 가운데 차별없는 참사람(無位真人) 관련 내용을 꺼려 뽑아 소개하고 있다.

서용 스님은 머리말에서 참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눈 깜짝할지 아니하되 본래 선과 악 또는 이성을 초월하여 생사도 없다.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본원리나 신도 부처도 없다. 여기에는 무한한 자기 부정만이 지속한다. 차별없는 참사람 실천승동의 교재로 일산 임조선사에서 펴냈다. 값 1만원.



'살모사의 눈부심'

줄프 리반엘리 지음

<살모사의 눈부심> (문학세상)은 터키 콘스탄티노폴의 왕궁과 하렘을 무대로 인간 본연의 심리를 풀어낸 소설이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피로 얼룩

'소멸의 아름다움' 필립 시먼스 지음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을 얻게 된 남자. 그러나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오히려 불완전함으로 인한 축복을 깨닫는다. 사소한 것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열두 편의 잔잔한 수필로 풀어놓은 <소멸의 아름다움> 나무심는 사람이 나왔다.

지은이는 필립 시먼스 씨.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레이크 포레스트대학 영문학 교수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한편 평론과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그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 루게릭이라 불

리는 근위측색경화증에 걸려,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된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 가는 기술을 터득하며 되살아난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고 '인간 승리 운운하는 휴먼스토리는 아니다. 거창한 인생론을 펼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그지 없는 일상사에 대한 관찰과 사색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일상에서 신성을, 초조함 속에서 여유를, 몸의 불편함 속에서 낙관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필립 시먼스 씨가 써내려 간 열두 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죽음을 처한 고통 너머로 보이는 '삶의 진실'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머리말까지 마친 8월, 지은이는 그 여정을 '충만한 계절'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다시는 맞이할 수 없는 계절일지도 모른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

죽음 앞에 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희망' 바로 그것이다. 값 8천원.

진 정사(正史)를 축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소설이 아니다. 왕궁을 무대로 한 권력다툼, 사랑, 폭력, 성적인 질투와 애욕을 섬세하게 파헤친 심리소설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테마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 모든 얽히고설킨 사건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탐욕과 갈등으로 정권의 주위에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왕궁 사람들의 이야기다.

매년 발간지역 모든 국가의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발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값 8천원.

핵심교리 해설 초기불교 개론서

'붓다의 말씀'



'붓다의 말씀'

빠알리 경전에서 불교의 핵심 교리를 가려 뽑아 해설한 초기불교 개론서 <붓다의 말씀> (교요한 소리가 울려퍼졌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저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범위는

빠알리 삼장 가운데 경장에 실린 부처님의 말씀을 일컫는다. 위은이는 미얀마에서 출가한 독일인 스님 나나틸로카 (1878~1957). 그는 서문에서 '불교 입문자들에게 이 책은 첫 번째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불교의 중요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불교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四聖諦)의 틀 안에

四聖諦 요점 체계적으로 해설

서 분명하고 간략하며 믿음만한 가르침의 요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고 밝히고 있다. 위은이가 말하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란 다음 아닌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를 말한다.

책의 특징은 일반 불교교리서와는 달리 원전인 빠알리 경전에 근거하여 핵심교리와 수행체계를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체계를 중심으로 삼법인, 연기설, 오온설 등의 교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초기 불교 수행지침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결국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의 초점은 초기불교의 수행법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불교의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빠알리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역할도 하고 있다. 고려재정경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재성 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적당 익시안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회색 고무신 | 윤 청 광 | 시 공 사 |
| 2 |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 임 지 의 | 민 족 사 |
| 3 | 달라이 라마 행복론 | 류 시 화 | 김 영 사 |
| 4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 원 태 | 김 영 사 |
| 5 | 불교입문 | 조계종편집부 | 조계종출판사 |
| 6 |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 정 화 | 법 공 양 |
| 7 | 극락은 있다 | 관 정 | 붓다의마음 |
| 8 | 생활수행이야기 | 원 황 | 불 광 |
| 9 | 영가천도와 49재 | 박 연 진 | 민 족 사 |
| 10 | 화엄경을 읽는다 | 기루카리요카 | 불교시대사 |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입! 값 1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신간!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람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택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이기적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죽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르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 각권 8,000원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